

## 제22회 자랑스러운 구민상

애향 최 학 봉 봉사 조 상 희 효행 임 경 택  
교육 하 계 우 치안 박 동 규 소방 변 상 철

남구는 제22회 '자랑스러운 구민상' 수상자에 일반상 3개 부문, 특별상 3개 부문 총 6명을 선정했다. 시상식은 제22회 오륙도평화축제 개막일인 지난 20일 특수무대에서 거행됐다.

일반상의 애향부문 수상자 최학봉(71) 씨는 감만1동에 30년간 거주하며 지역 사회를 위해 묵묵히 봉사를 해왔다. 어려움에 처한 이웃이 있으면 사비를 털어서라도 도움을 주는 등 마을에서 그의 도움을 받지 않은 사람이 없을 정도로 숨은 봉사자로서 마을의 귀감이 되고 있다.

봉사부문 조상희(54) 씨는 35년간 잠수사로 활동해오다 지난 2012년 불의의 사고로 오른손 손목이 절단된 후 실의를 당고 봉사활동에 매진하고 있다. UDT 자원봉사단 장단, 이기대~오륙도 해안가 정비, 관내 학생 연계 자원봉사,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잠수부로 18일간 수색참여, 올 7월 충남 괴산군 수해현장 자원봉사 등 재능을 펼친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효행부문 임경택(16) 군은 감만중학교 3학년으로 초등학교 때부터 어머니를 도와 새벽에 우유 배달을 돕고, 집안 청소, 빨래 등 집안 일을 도맡고 있다. 병중인 할머니를 극진히 보살피고, 평소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이 있으면 자진해서 돕는 등



제22회 자랑스러운 구민상을 받은 수상자들. 왼쪽부터 일반상의 애향부문 최학봉 씨, 봉사부문 조상희 씨, 효행부문 임경택 군. 이종철 남구청장(중앙), 특별상의 교육부문 하계우 씨, 치안부문 박동규 씨, 소방부문 변상철 씨.

가정과 이웃에서 효행 사상 실천으로 귀감이 되고 있다.

특별상 교육부문 수상자 하계우(59) 씨는 용호중학교 교장으로 34년간 교직에 헌신했다. 부산시 토목교육, 자유학기제 운영, 학생진로체험활동 운영, 교육과정 개정 컨설팅으로 활동하면서, 남부 교육발전

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했다.

치안부문 박동규(34) 씨는 남부경찰서 경무과에 근무하면서 지역 주민 치안민족도 향상을 위한 TTF팀 운영, 남부경찰서 내 지하카페 조성, 민원인 주차장 확장, 고객민족 컨설팅 실시 등 주민에게 다가가는 치안 서비스를 펼친 공이 인정됐다.

소방부문 변상철(31) 씨는 남부소방서 용당119안전센터에 근무하면서 재난현장에 출동하여 인명구조에 헌신적인 활동을 하고, 관내 저소득층, 독거노인 등 복지사각지대를 방문해 기초건강관리 실시, 단독경보형 감지기 및 소화기 보급 사업을 적극 추진해 왔다. ☎607-4115

## 아름다운 향촌시대

## 71세 보디빌더 하동철 씨 전국대회 은상

'노익장(老益壯)'이란 '나이가 들어도 기력은 오히려 더 좋아진다'는 뜻이다. 용호2동의 하동철 씨에게 딱 어울리는 표현이다. 올해 71세인 하 씨는 지난 9월 30일 열린 제47회 미스터 YMCA 전국보디빌딩대회 60세 이상 실버부에서 은상을 차지했다. 3년 전 같은 대회에서는 3등을 수상한 바 있다.

이번 대회에서 받은 하 씨의 은상은 어찌 보면 금보다 값지다. 1등 수상자보다 나이가 많고 실력이 많고 출전자 가운데 최고령자였다. 더욱이 하 씨는 단백질보충제를 전혀 복용하지 않은 순수 맨근육이다.

하 씨의 보디빌딩 인생은 20년 전으로 거슬러 간다. 부산공업고등학교 교사 시절 취미로 수상스키를 배우는데 팔 힘이 딸려 근육을 올리볼까 싶어 들었던 바벨

의 매력에 흠뻑 빠져버렸다. 10년 전 교감 퇴임 후 본격적인 몸 만들기에 돌입했고 5년 전부터는 남구국민체육센터에서 하루도 빠뜨리지 않고 하루 1시간 이상 웨이트 트레이닝을 통해 체력을 키워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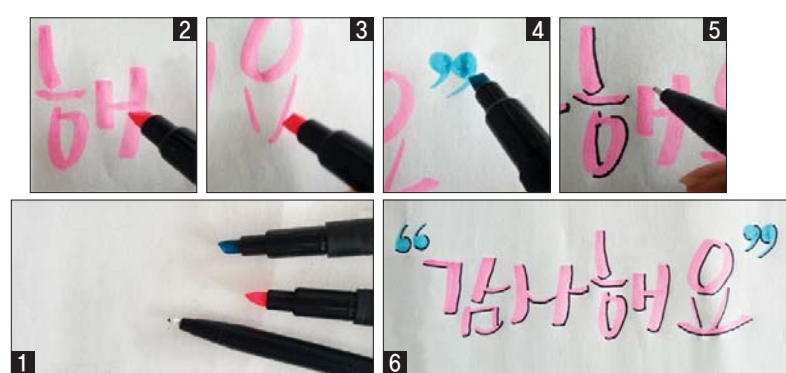
세월을 거스르는 조각 같은 몸매와 강철 체력은 철저한 자기관리의 결과물이다. 아침은 견과류와 과일, 저녁은 닭가슴살과 찹쌀을 죽처럼 해서 먹는다. 다만 운동 후에 먹는 점심만큼은 원 없이 즐긴다고 한다. 하 씨는 내년 5월에 있을 미스터코리아에 출전하고 이어 아시아대회에도 도전할 포부를 품고 있다. "보디빌딩은 몸 양쪽을 균형 있게 사용해 나이가 들수록 꼭 해야 하는 운동"이라고 말하는 그는 나이가 팔순, 구순이 되도 보디빌딩을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하동철 씨가 대회에서 받은 은메달과 트로피를 들어 보이고 있다.



## 강경호의 3월22일 2017 ㉞ 캘리그래피 입문

## 세상 하나 뿐인 손글씨 5분이면 쓱~쓱!



## 생활쓰레기 배출 '작은 지혜'가 필요합니다

## 종이팩 분리배출 안내

- 종이팩 종류 : 우유팩, 두유팩, 주스팩 등
- 배출방법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후 일반폐지와 혼합되지 않게 따로 모아 배출
- 두루마리휴지 교환행사
  - ▷교환장소 : 남구청 청소행정과 3층 및 각 동 주민센터 (우유팩 1kg → 두루마리 휴지 1개)



## 폐건전지 분리배출 안내

- 배출장소 : 남구청 청소행정과(3층), 민원대(2층), 각 동 주민센터 분리수거함에 배출
- 폐건전지 교환행사
  - ▷교환장소 : 남구청 3층 청소행정과 (폐건전지 10개 → 새건전지 1개)

## 폐형광등 분리배출 안내

- 배출방법 : 형광등이 깨지지 않게 조심하여 포장을 벗겨서 배출
- 배출장소
  - ▷일반주택 및 대형마트 분리수거함
  - ▷각 동 주민센터 분리수거함
  - ▷남구청 청소행정과(3층) 분리수거함 ※ LED등은 제외

문의 : 청소행정과 재활용팀 (☎607-4451)

## 서예로 치매 쫓는 LG메트로시티 호산서원

"흰 화선지 위에 한자 한자 글씨를 쓰다 보면 마음이 정화되고 힐링이 되는 느낌입니다." 근래 글 쓰는 맛에 푹 빠진 장지연(73) 씨의 서예 여정은이다.

서 씨가 처음 서예에 입문한 곳은 자신이 살고 있는 LG메트로시티 아파트 경로당 내에 있는 호산서원이다. 무료한 여르신들을 위해 마련한 무료 서예교실이다. 호산은 이 서예교실을 개설하고 '후진'을 양성하는 이화국(67) 원장의 아하다.

이 원장이 서예교실을 개설한 지 만 5년이 됐다. 그 역시 취미로 익힌 서예가 필력이 쌓이면서 재능을 주민들과 공유하기 위해 서원을 열었다.

나이든 노인들이 고스톱과 술로 무료함을 달래는 게 안타까워 회원은 어르신 위주로 모았다. 따라서 회원 평균 연령은 70세에 이른다.



서예교실 호산서원의 이화국 원장(뒷줄 중앙)과 회원들.

이 원장은 30여 명을 두 개반으로 나눠 각각 일주일에 이틀씩 가르친다. 수업은 매월 2시 30분, 5년을 쉬지 않고 서예봉사를 해 2500시간을 넘겨 최근 남구자원봉사센터에서 감사장을 받기도 했다.

세월이 흘러 회원들은 기량이 쌓이면서 점차 서예가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 붓글씨를 넘어 사군자, 문인화와 어렵다는 수묵화에 도전하는 회원들도 속속 생겨났다. 이달 초에는 소박하나마 회원들의 첫 전시회도 가졌다.

글자의 강약을 조절한다 ⇒ 감사해요를 강조하기 위해 따옴표(" ")는 정색으로 쓴다 (사진 ①) ⇒ "감사해요" 쓰기가 끝나면 겹점 수성펜으로 입체감이 드러나도록 글 위에 한쪽 방향으로 테두리를 입힌다 (사진 ②). 입체감을 나타내려면 두 가지 이상의 짙은 색과 옅은 색을 준비하면 된다. 여기서는 수성펜 대신 연필과 볼펜도 무난하다. 처음 글씨 보다 짙은 색의 형광펜도 가능하다 ⇒ 휴대폰으로 촬영하여 편집하면 캘리그래피가 완성된다(사진 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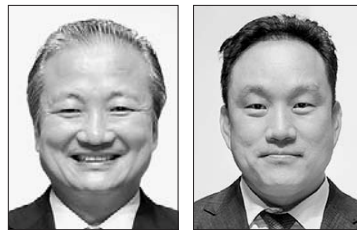
다로 손글씨 전용 필기구는 구입하지 않아도 된다. 글씨가 큰 작든, 뾰족하여도 상관없다. 틈틈이 연습하다보면 이번 연말쯤에는 '나만의 캘리그래피'를 자신 있게 보낼 수 있을 것이다. 문화기획자 겸 지역플랫폼 수영넷(suyeong.net) 대표

## 제11회 부산문화예술큰잔치

## 남구문화원 김철 부원장·김태유 이사 표창

부산의 15개 문화원이 참여한 제11회 부산문화예술큰잔치에서 남구문화원 김철 부원장(고려병원 이사장·왼쪽)과 김태유 이사(월리스요양병원장)가 지역문화발전의 공로로 각각 부산시장상과 부산시의회의장상을 받았다.

지난 18일 부산시민회관 대극장에서 열린 행사는 부산광역시문화원연합회(회장 성재영)주최로 각 문화원의 수강생들이 그동안 익힌 솜씨를 자랑하는 자리로 남구문



화원은 수강생들이 갖고 닦은 화관무를 선보여 관객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

## 2017 체력왕중왕 남구 출전자 2명 동메달

남구는 지난 9월 17일 서울 올림픽공원에서 열린 2017년 국민체력 100 체력왕중왕 선발대회에서 남구 출전자 2명이 동메달을 수상했다.

여자부문에서 청년부 이나연(22·왼쪽), 장년부 백정미(56)씨가 각각 3등에 입상, 상금 50만원을 받았다.

문화체육관광부가 개최하고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주관한 이 행사는 전국 37개 체력인증센터에서 202명의 선수가 참여하였다.



남구는 청년부, 중년부, 장년부 남녀 각 1명씩 총 6명이 출전했다.



지난 9월 서울 평화문 광장에서 열린 2017 장애인문화예술축제 'A+ Festival'에서 우수상을 받은 굴렁쇠 회원과 어머니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흥겨운 사물놀이 가락에 장애는 훌훌

## 발달장애 청소년 풍물패 '굴렁쇠'의 아름다운 도전

"달아 달아 밝은 달아 대낮같이 밝은 달아~명령 쿵 더쿵~" 용호4동 억수탕 옆 지하에 자리 잡은 풍물터 '만관'. 청소년 풍물패인 '굴렁쇠' 회원 10명이 북, 장고, 징, 팽파리로 흥겹게 연주하는 영남농악이 지하 강의를 가득 채웠다. 문외한의 눈과 귀에는 수준급이다.

굴렁쇠는 조금 특별한 사물놀이 동아리다. 지적장애·자폐성장애를 갖고 있는 10명의 발달장애 청소년들로 결성된 모임이다. 현재 고등학교 4명과 스물셋을 갓 넘긴 청년들로 구성돼 있다. 굴렁쇠가 이 만큼의 수준이 되기까지 꼬박 5년이 걸렸다.

5년을 갖고 닦은 영남농악으로 굴렁쇠는 지난 8월 제5회 대한민국장애인예술경연대회에서 장려상을, 9월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2017 장애인문화예술축제 'A+ Festival'에서는 우수상을 받았다. 두 해 전부터는 남구 내 복지관 등을 돌며 '재능기부' 공연도 갖고 있다.

굴렁쇠는 글자를 외우지 못하는 장애아들에게 성취감을 심어주고 싶었던 어머니 이외수 씨에 의해 처음 결성됐다. 남모를 아픔을 하나씩 품은 아이들이 모이면서 굴렁쇠가 조직됐다. 비장애인도 쉽지 않은 전통악기였다. 하지만 땀과 세월이 쌓이면서 따로 놀던 북, 장고, 징, 팽파리가 점차 박자와 리듬이 안정되며 하나의 소리로 모아지면서 마침내 음악이 만들어졌다.

강사 김 씨는 "사물놀이는 두들기는 타악기이다 보니 넘치는 힘을 풀 데 없는 발달장애 청소년들의 스트레스 해소해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며 "아이들이 일주일 내내 풍물 수업만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굴렁쇠는 앞번호에서 선반(농악)으로 공연 수준을 한 단계 높이기 위해 한 주에 두 번 해오던 사물놀이 수업이 최근 세 번으로 늘려 맹연습 중이다. 2년 정도 더 연습해 단독공연을 가질 계획이다.

## 스티로폼 재활용 가능



박스용 흰색 스티로폼



깨끗한 흰색의 반침 접시

## 스티로폼 재활용 불가능



테이프 및 스티커 부착



색상·무늬가 있는 것



이물질 오염 및 물에 젖은 유형



라면 용기



박스내부 기타 재활용품 포함(별도 분리배출)



과일포장 및 스면지 형태

